

# 문화가 밥 먹여주는 세상



**시론**  
**권영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1997년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집권하면서 내놓은 첫 번째 정책이 ‘창의 영국 (Creative Britain)’이었고, 이를 실천적으로 수행했던 인물이 크리스 스미스라는 초대 문화장관이였다. 당시 가장 대표적 정책 실현이 ‘뉴캐슬 프로젝트’였다.

탄광 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그 중심지였던 뉴캐슬은 실업과 가난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뉴캐슬 재생 사업이 가동되고 박물관·미술관·무용 전용관이 들어서면서 뉴캐슬은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불과 몇 해 만

에 놀랍게도 관광객 연간 2000만 명, 실업률 20%에서 4%로 격감, 문

화산업 종사자 6만 명, 연 관광수익 40억 파운드(약 8조4000억원)를 올리는 각광 받는 도시로 새롭게 태어난다. 문화예술로 한 도시가 재생되고, 문화예술로 지역주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 경우다.

우리나라에도 탄광 도시 정선이 있다. 이 정선이 옛날의 그곳이 아니다. 토요일 아침 8시반, 서울 청량리역에서 정선행 기차를 타고 정선 5일장에 도착해 강원도 산채와 유기농 음식물들을 사고 나면 12시, 정선아리랑 콘서트가 열린다. 한 시간여 신나게 아리랑 선율에 흥을 돋우고 장터 점심을 든 다음 다시 기차로 돌아온다. 이런 행렬이 지난해 무려 46만 명, 주민 연 소득 9700만 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다. 정선아리랑이라는 문화적 우수성(Excellence)에다 5일장과 청량리발 기차라는 접근성(Access)이 합쳐지면서 문화가 밥 먹여주는 세상을 실제로 만들어주고 있다.

문화의 우수성과 접근성을 얼마나 조화롭게 교합시키느냐, 여기에 문화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지난주 정부가 문화융성 국정과제를 구현할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대별하면 두 가지다.

그 하나는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살 지원을 하면서 예술 창작을 북돋우는 방안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예술인에게 긴급 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마친 이들 중 1200명을 선정해 3~8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원한다. 창작기반 활성화를 위해 극장 대관료를 80% 보조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무대기술 인력에 100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5곳에 창작연습공간을 120억원 들여 조성하고 예술 강사를 5000여 명, 문화복지 인력을 1000여 명 늘리는 등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

또 하나는 지역과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문화예술에 접근하고 문화가 있는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주력하는 정책이다.

120억원을 들여 전국 20곳에 생활문화센

터를 새로 조성하고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영화관 10곳을 신설한다. 저소득층의 문화

## 영국 뉴캐슬과 정선의 화려한 부활

## 문화의 우수성과 접근성의 산물이다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구당 10만원씩과 청소년 5만원씩을 포함해 전국 144만 명에게 혜택을 준다. 이 ‘문화누리 카드’ 한 장이면 극장도 가고 여행도 가며 야구장에 갈 수도 있는 통합 문화이용카드가 된다.

기초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은 어떤 장르보다 춥고 배고픈 신세다. 이들에게 밥과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문화예술이 낙후된 지역과 계층엔 접근성을 높여준다. 이것이 문화융성 국정과제의 정책적 실현을 위한 기본 구도라고 나는 파악한다. 문화의 우수성을 보강하고 접근성을 높여주는 정책이다.

문화예술은 지적·정신적 가치 이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효용을 지닌다. 문화가 있는 삶은 개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사회통합·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국격을 높이는 데 까지 연결된다. 문화예술이 실제로 밥을 먹여준다. 이것이 허구가 아닌 현실의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문화융성이라는 국정과제가 한낱 구호가 아닌 우리의 절실한 현실임을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